

한글

號九第·卷二第
【號月二十】
1934

— 部 一
— 金 一
— 五 三 金 一
— 錢 十 三 金 一
— 錢 五 十 五 金 一

所行發
九二一洞花府城京
部版出會學語鮮朝
番六三〇一城京督振

차		목	
한글 통일과 보급에 대한	2	조선어학도서 전람회	1
각계 여러분의 말씀	2	한글 통일과 보급에 대한	2
한글 하루잡아쓰기 의협	4	朝鮮語讀本卷一	11
語彙調査(三回)	8	指 導 例	11
李浩盛	8	古語源流考	11
		朴魯哲	11
		물음과 대답	11
		四八八回 한글날 기념식	12

조선어학 도서전람회

우리 조선어학회에서 금년의 한글날을 의미있게 기념하고자 하여 지난 시월 이십칠일, 이십팔일, 또 하루를 더 연기하여 이십구일까지 모두 사흘동안 조선어학 도서전람회(朝鮮語學圖書展覽會)를 열었다.

단서일등안에 준비한것이라,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사회 각방면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말미암아 전람회는 이외로 큰 성황을 이루었고, 이외의 큰 수확을 얻었

다.

돌아보전데 미술, 연극, 서화 박물관 문화적 의의를 가진 각종의 전람회가 때를 따라 여러 차례로 열린적이 없지 않았으나, 민족문화의 기초라고 할 조선어학에 관한 도서전람회는 일찍이 한번도 열린적이 없었다.

이 전람회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우리글의 발달 및 변천한 과정을 펼쳐놓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조선문화의 조감도(鳥瞰圖)라고 하기에 부끄럼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때에 진열된 도서의 종류의 대강을 적어 보면,

- 고전부(古典部)
 - 정음류(正音類)
 - 언해류(諺解類)
 - 경서류(經書類)
 - 문학류(文學類)
 - 자서류(字書類)
 - 역어류(譯語類)
 - 잡서류(雜書類)
- 신서부(新書部)
 - 문법류(文法類)
 - 교과서류(教科書類)
 - 논저류(論著類)
 - 잡지류(雜誌類)
 - 신문류(新聞類)
- 사전부(辭典部)
 - 조선어(朝鮮語)
 - 한문(漢文)
 - 외국어(外國語)
- 참고(參考)
 - 언어학(言語學類)
 - 성음학(聲音學類)
 - 논문(論文類)
- 재료부(材料部)
 - 본회기록(本會記錄)
 - 편년기록(官邊記錄)
- 잡종부(雜種部)
 - 통계표(統計表)
 - 사진(寫眞)
 - 성음도(聲音圖)
 - 세계 문자 종류
 - 세계 속기법 부호
- 실험성부(實驗聲音部)
- 사전편찬부(辭典編纂部)

모뎀는 말씀

本誌가 續刊된 이후 滿天下 愛讀者 諸彦의 熱烈한 聲援을 입어 날로 發展하여 감을 감사하 나이다. 本誌는 新年號부터 體裁와 內容에 있어 多少 變更이 있을 듯 하오니, 愛讀諸氏는 미 리 諒悉하시고, 倍前 鞭撻하여 주시기를 바라 나이다.

동의 진의(眞意)와 정을 보려 함이었으며, 다른 모든 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글 연구에 대하여서도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민족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외치는 우리의 충정을 보이려 함이었다.

한자도 배지 말고 다 읽어주시요

아리글의 총일곱 오직이 잠시

하 글 의 통 과 보 급

민중의 권익구성이
민중의 민고 통일본이다

實生活社 社長 鄭世權

한부로 팀비는 무외인의 세상은 별거 지 나갔고, 이제는 권문가를 신임하는 때다. 그러므로 조신어 철자법 통일안도 이 방면의 권문연구자들이 모인 단체 조신어학회에서 여러해동안 애써 맨든것인즉, 통일의 권위는 있다. 민중은 민고 뜻을껏본이다.

귀회에서 발표한 통일안을 각 교육기관과 출판업계를 통하여 보급시킬것은 물론이나, 그 중에도 대중을 위하여 간단한 독본을 맨들어서 널리 퍼어 익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실생활(實生活) 잡지는 우리의 뜻을 다하여 통일안을 좇고 있다. 다소 틀린 곳이 있으나, 오래지 않아 고쳐지리라 믿는다.

제이나라 문화의 씨나
전민주의 나선서 뿌리라

時兆社 主幹 王大雅

문자는 그 나라 문화의 종자(種子)와 같습 니다. 그 종자가 불완전하면 그 문화도 불 완전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신 문화의 씨를 새로 뿌리는데 이 한글 운동의 귀중한 사 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지와 서적 사업에 종사하는이만치, 이 한글 운동 에 크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 동이 착착 진행하는것을 볼 때 기뻐할만 하지 않고, 힘쓰시는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의 반대가 있는 것은 필연한 형세라고 생각하면서도, 꼭 유 감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통일이 되고 완성이 되면 하고 빌겠습니다.

본 시조(時兆)잡지와 기타 본사에서 발행 하는 서적은 본사에서 직영하는 인쇄부에서 인쇄하는바, 경비관계도 있고 좀더 완전한 통 일을 기다려 활자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활자가 허락하는 안에서는 통 일안을 표준하고 씁니다.

이 한글을 보급시키는 방법은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교 교과서를 통일안 에 좇도록 운동할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교회 의 청경을 통일안에 좇도록 운동할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적극적인 맹렬히 운동하여야 될것으로 알며, 이 두가지가 되면 한글 운동 의 반 이상은 성취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친척입니다. 쉬지 않고 무슨 방면 으로든지 떠들어서 대중의 마음을 진장시키 는것입니다. 친 민중의 총동원하여야 할 운동 인이만치, 여간 시들러서는 아니될줄 압니다. 이상 세가지 운동에 조신어학회와 기타 여 러분의 고심과 분투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다 가지 일어나 나아가서 이 씨를 반도강 산 방방곡곡에 뿌리어 문화의 꽃이 찬란하 피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철자법의 민중어
언어학자의 사명이야

서울시보사 社長 俞鎮泰

글을 쓰는것은 한 민족 전체의 지파는, 그

때를 통일하게 안(案)을 세워서 온 민족이 다 가쳐 쓰게 하는것은 커마다 하는것이 아 니라, 언어학자(言語學者)의 일로 압니다. 그러므로 조신어학회는 오로지 이 사명을 맡 은 학회인이만치, 꼭 거기에서 할 일이라 합 니다.

누구라도 한글 철자법 통일안을 좇아 쓰 도록 서로 권하며 가르치는것인데, 일반 출 판물이다 그렇게 교정하여야 하며, 때때로 강 습회를 열어서 교양할것이요, 더욱이 조신어 학회 기관 잡지인 「한글」을 널리 보급시키 는것이 좋겠습니다.

수만독자와의 요청이로
불권간 신철자를 쓰겠다

별나라 主幹 安俊植

우리의 철자법이 극히 혼란한 가운데 있 다는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바 아니요, 하루바삐 통일하여야겠다는것도 이제 새로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안 마땅히 이 방면의 전문으로 연구하신 조신어학회의 여러분을 믿고 나아가 겠이나, 통일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출판물을 통하여 통일을 피하되, 조신의 대중독물(大衆讀物)로 되어 있는 신구소설등에까지 손을 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회에서 발간하는 「한 글」잡지의 힘도 크려니와, 때때로 한글 강

각 계 여 리 분 의 말 습

(回)

습회를 열어 모르는 사람을 차례차례로 깨우치는 것도 필요한 일이며, 민중에게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신문들이 모두 신철자법을 채용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나는 한말에도 몇번씩이나 지방 독자에게서 질문을 받습니다. 「별나라」는 왜 신철자법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말하자면 청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인쇄소 문책을 시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조금씩 섞어 쓰자는 중이니, 아마 내년쯤은 우리 「별나라」도 완전한 신철자법으로 개정하여 수단 독자의 청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집의 철자운동이야 제이제단에 들어갔다

東洋醫藥社 主幹 趙憲泳

「한글」의 이론구복(理論克服)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몇해 전만 하더라도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괴벽스러운 사람으로 대접하고 잠고대와 같이 생각하던 한글 철자법도 지금에 와서는 민중의 상식이 되고 대중화(大衆化)하고 말았다.

정당한 주장은 승리를 얻고야 마는 것이며,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성과가 있는 것이다. 한없이 혼란한 상태에 있던 조선글이 이제 거의 완전하게 청돈되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크게 경하할 일이다. 훌륭한 건축은 기초공사를 완실히 잘 하여야만 오래도 가고 외관도 좋은 것이다. 조선의 문화는 한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건전한 위대한 조선 문화는 청돈된 훌륭한 한글을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글』잡지가 철자법의 이론구복의 성과이고, 문화건설의 제일보를 내어놓은 획기

적 발전을 볼 때에 충심으로 기쁨을 금하지 못하겠으며, 조선어학회 কে씨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편집하는 「동양의학」은 철자문체와는 먼 거리에 있는 청질의 잡지지마는 통일안 그대로 하겠다.

성서의 개정과 함께 우리도 다 따르려 한다

救世新聞 主幹 李建泳

우리글의 통일을 누구나 못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땅히 통일해야 되겠다는 뜻이야 가지고 있지마는, 여간 어려운 문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세군 보영에서 발행하는 구세신문과 그 이외의 여러가지 출판물은 아직까지 구철자법의 좀더 일반 민중에게 보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한가지는 성경(聖經)이 신철자로 개정된다면, 무론 우리들도 그대로 좃을 것이며, 적당한 시기를 보아 그 안으로도 실행할는지 여려분과 의논하여 보아야겠습니다.

이런의 상의점야 연구문제로 두자

黨聲 主幹 鄭應瑋

무엇이든지 흠어져 있는 것을 거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수백년동안 버려두었던 우리글의 정리와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은 여간한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언젠지 이러한 어려운 구비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하는 방법의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이 방면에 전문하시는 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자

주 강습회 같은 것도 열어서 모르는 사람들을 잘 교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문제로 마루 돌려두고, 우선 통일안 보급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의 기관지 「당청」은 통일안을 따른다고는 합니다마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나, 우리의 태도와 의도는 이미 작정되어 있으니, 까,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집의 통일안야 학술적 실용적을 치중

震檀學報 編輯人 李丙燾

조선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조선사람으로서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선말과 글의 연구하는 것이 조선 문화 연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선 문화를 위하여 힘쓰는 이로서는 결코 조선 어문을 범범히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文字)의 통일에 대하여는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볼지라도, 일찍이 여러가지 운동이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이러한 운동이 있을 것은 필연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날 이렇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글을 통일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술적으로 취합하고 실용적으로 편리한 철자법 라야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맡기고 말 문제입니다.

진단학보(震檀學報)는 조선 및 인근(隣近) 문화를 연구하는 학도들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잡지입니다. 무론 이 잡지에도 앞으로 한글 연구에 관한 논문의 상이 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는 철자는 편집회의 결의를 좃아 조선어학회 통일안식을 좃고 있습니다.

한론

바루
잡아
쓰기
힘익

그런데 로쓰는것의 잘못을 바루잡아 쓰기를 의하는것이 우리글을 통일하는데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 글을 두는것이다. 이것을 읽을 때에 그 결에 바루잡아 쓴것을 깊이 주의하여 보기를 바란다.

크리스마스

꿈

一幕

데레아치르트 지음

인물 루세르 十 六세
노라 計集하인

꿈속의 아이들

조선 十 四세
일본 十 三세
중국 十 二세
인도 十 三세
팔레스티나 十 五세
애굽 十一세
에스키모 八세

제1장

(루세르는 난로 곁에 앉아서 책을 보았다) 노릇다 하기도 하고, 당기만 만 저거리기도 하면서 가끔씩은 조비비듯 하는 모양으로 방문속을 들여다보고 앉았다)
루세르— 웨 이뻐것 옷을 안이 가쳐
오누. 그 상념 사람들엔 언케든지
약도를 그려주어야지. 그러나
하여둔 구두는 또 웬말인가. 오늘
밤 연회의 그 옷을 입고 새 은

신(銀鞋)을 신고 할렐테, 벌써 치장을 차릴 때가 되어오는구먼. (조그마한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셈을 쳐 보는건 머리사알 알뜰 일이다. 었어 재쳐 아버지는 내게 이럴것을 뻔뻔히 아시면서, ... 오일하고 십 일 원 이십 이천이닷가, 십 칠원 이십 이천이닷! 앓, 들리지 않나? 아모려나 상관 잇나. 그러나 이것 보다도 빼빼 신하고 새 모자하고 초코레드하고 또 새 약이책하고 그것만은 었더케쳐든지 사야지!
(누가 차저온 기척이 들리고, 노라가 등장한다)
노라— 용서하십시오. 아씨, 더지급구 두장사가 구두를 가져왔습니다. 잠간 신어보시라구요.
루세르— 응, 그래, 구두상사를 이리

들여 드려오라고 해라.
노라— 메, 그리죠. (나간다)
루세르— (치부책을 내던지고) 에이잇 참 귀찮다. 옷이 데일 급한데, 웨 이 때껏 오지를 안누.
(구두상사가 상자를 들고 들어온다)
구두상수, 이리 가져오오, 곳 신어 볼레니.
(구두상사 차례차례 상자를 연다)
그러나 어디 은신이 잇소. 오늘 연회에 가는데는 은신이 잇셔야 할테데, 은신을 주문하였는데, 할렐테도 없지 안소.
구두장이— 네, 아씨, 저에게는 말삼하 신 갑스로는 안이되야져 좀 비차면 었덜가 해시오, 에...
루세르— 하지만, 그래, 할렐테도 단말요? 이럴것은 죄다 가지고 가주우. 맘에 맞는것은 달은 가게에 서 사올레니.
구두장이— 이것은 저의게져 아씨님네들의 주문을 받아서 특별히 만든 상등의 검청 구두를시다. 아씨님, 어떻습니까 한번 신어보시지요.
루세르— 안요, 쓸데 없어요. 다 가

지고가주! 난 다른데서 찾아올테니.
(책 열을 본다. 구두상사가 물건 싸는 동안에 노라가 등장)
구두장이— 비천과는 참 선판이다. 오늘 저녁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수탄생 전날 밤)인데.
노라— 아씨 더 옷이 왔습니다. (노라가 두점 중의 상자를 연다)
루세르— (그것을 잠깐 들여다 보고) 아 아 그건 조흔데, 옷은 좋하지 은혼가보다. 애, 그것을 내 방에 갖다 두어라.
노라— 더커 그리고 아씨, 모자장수가 왔습니다. 모자 새 리센(당기)을 갠 새중에서 골라주시사구요.
루세르— (조급한듯이) 아아 더겉 었어 저러나. 지금 난 골들수 업는데. 애 모자장수다려 래일 오라고 해주렴.
노라— 아씨, 래일은 크리스마스를시다.
루세르— 누가 아니라니, 그러치만 모자장수다려 래일 오라고 하기로 그려니 었었던 말이야.

노라 — 하지만 내일은 누구든지 놀
니다. 아씨 어머니의 사첫술젠:

루세트 — 아아, 그사위 소렌 고만두
어라. 더리 가쳐 옷 낚기 천에 좀

중용히 내바려두어주렴.

(노라가 나가고, 합창대가 밖에서 크리
쓰마쓰의 창가를 불은다. 루세트는 안

락의자에 기대 앉아서 잠을 청하는

모양)

에인 머리스알 알르게 요란두 하

다.

(노라 다시 등장)

노라 — 아씨, 합창대들의게 무엇을 주

렴니까. 부엌에서 더운 차라도 주

는게 어떠겠습니까. 펴 눈이 몹시

쏟아져서 찬 모양이오니.

루세트 — 아니라. 결코 아모것도 주

지 마라. 그사위 떠드는 할수업는

위인들에게는.....

노라 — 참, 아씨 오날 밤은 크리스

마쓰의 전날 밤이 아님니까. 아씨

그천에 마담의씨는 언케든지 손소

합창대를 보라 가쳐서 친절한 말

습습.....

루세트 — 아아, 인케 그만만 해도 다
알았. 난 혼자 내바려두렴이나.

얼는 나가라는데.....

(노라는 나가고, 루세트는 안락의자에

떨어 앉아서 졸고 있다)

(천자의 노래는 솔솔 불니는듯하고, 반

주(伴奏)는 없서졌다. 숲속의 아희들이

들어 드려온다)

이탈리 — 아 참 섯듯한 좋은 방이

다. 나는 해나빛에 빛나는 이래리

를 떠나쳐 치워 못 견대엿더니,

여기 오닛가 아조 고국에 도라간

것 갔고나. 여기는 아마 화려한 가

덩인것이 분명하다.

에스키모 — 나의게는 좀 너머 더웁다.

그리치만 이런 마음에 드는 집에

서 살수만 잇스면 그럴것은 아무

러치도 안희다.

인도 — 좋지 않은 곳에는 참된 미

(美)가 없다고 달은 사람들이 말

하두구먼.

에스키모 — 확실히 여기는 좋은대야.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라고 생각해.
(아희들은 루세트의게 가까이 가서 들

여다 본다)

에집트 — (표의 견해 세러진 손수건을

집어 올리며) 여기 수건이 더러워 잇

네. 아, 이 계집애의 일홈이 씨여

잇네. 「루세트」 — 참 좋은 일홈이

다.

이탈리 — 응, 그러구, 그 일홈의 의

미가 조흔걸 — 「작은 빛」 — 아마

더 계집애는 「빛」 아희」로, 조흔

행실만 하는 빛나는 링반인가보다.

조선 — 더더 계집애는 어떤 조흔 사

람인구. 나도 그런 일홈이 마음에

들어 드려. 그럴 디경이면 나도 착한 사

람이 되기 칭다고 생각해.

일본 — 그러치만, 성경의 우리들은 다

「빛」 아희」라고 불은다고 잇소.

유쾌해 못 전떨애는것 같치

마음속이 광명한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것을 날으는것 같해.

중국 — (은유한 목소리로) 베를네헴의

신성한 어린 아희처럼 말이지.

팔레스치나 — (깃본드시) 메. 크리스마

쓰날에 신성된 어린 아희가 우리

나라에 잇습니다. 베를네헴은 우리

나라에 잇습니다. 그레서 해마다 거

기서 크리스마쓰를 기념하지요. 주

메수외서 나신 오양간이라고 하는

대를 가보닛가, 아조 오래된 글속

이것지. 그리고 거기에는 오래오래

된 교회가 잇는데, 아마 세기에 데

일 오랜것일걸. (마음에 훌훌한다시

죄우를 돌녀다 본다)

에집트 — 메수 크리스도외서 아직 어

리실 써에 우리 나라에도 오섯

는데, 여러분도 아시것지요. 생각하

면, 깃바쳐 못 견대잇서. 메수외서

아시아 가신것 같치 애집트에도 오

섯다는걸... 그레서 악착한 헤로테

임금이 메수외를 죽이라고 벌은

것을 우리 나라가 숨겨 드렸지요.

팔레스치나 — 베를네헴의 아희들은 지

금 크리스마쓰의 찬미가를 불으고

잇습니다. 당신들도 아시는바와 같

수씨 때문에 죽었지요. 지금도 우리들은 베를레헴에서 그 아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 우리 중국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 예수씨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도 예수씨를

나 — 차라리 죽는 것이 낫

다 — 다 있었습니

인도 — 역시 그

라요.

일본 — 일본도 넷칙안 그랬어요.

조선 — 예수씨께 난 무엇을 드릴수

가 있을가. 내일은 예수씨의 탄생

일인데, 우리들은 예수씨께 무엇을

드릴수가 있을가.

이탈리 —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

리고 주려서 썰썰 매는 불상한 아

이들에게 다 주기 때문에 인제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예수씨

는 무엇이든지 죄다 아시니까, 그

래두 팬찬켓지. 난 예수씨를 칭찬



하는 노래나 불너서 무엇에든지 쓸

다가 잇도록, 내 목소래나 빗치겟

다.

에스키모 — 나도 참가하고싶다. 크리스

마쓰의 찬미를 배우기 시작하였건

만, 엮집 소경 아히에게 대거리하

야 주느라고 노곤해서 자비리기 때

문에 이철 빛과 외우질 못하였어!

하지만, 난 예수씨를 위하여 일하려

고 이 손을 빗찰테이. 눈과 얼음

에 찌힌 우리 나라에서 예수씨를

위해 일하지요.

에집트 — 우리 나라는 아주 더워

여러분의 나라 갖지 안하요. 하지

만, 나는 심부림을 해드리라면 갈

수도 잇고, 예수씨를 아지 못하는

아히들에게 베를레헴의 어린 아히

들 이약이도 해드릴수 잇쳐요. 난

심부림 하랴구 내 발을 예수씨의

바 밟치지요.

인도 — 나는 언케든지 예수씨를 사

랑하도록 내 마음을 빗치.

렇게 합시다 그럼.

일본 — 아, 드르쳐요. 더건 천사의 노

래하는 소래가 안임닛가.

(크리스마쓰의 찬미가가 고평히 들린다)

조선 — 우리 조선에는 예수씨를 사

랑하는 사람이 많하요. 더 노래를

들으

드린면 집에 가구십혀!

중국 — 에, 우리들도 다 집에 도라

가십시다. 그래서 티일 크리스마쓰

를 크게 여러 곳에서 축슈십시다.

어린 아이들 — 갑시다. 루세트 아씨,

조그만 광채 아씨, 즐거운 즐거운

크리스마쓰를 미스십쇼.

(루세트의게 향하여 손을 흔들며 나간다)

(고요한 음악은 계속되고, 루세트는 차

차 잠이 깨인다)

루세트 — 난 확실히 천사의 노래를

들었

드렸다. 그리고 아히들은 다 깃다.

조선 아히도 일본 아히도 중국 아

히도 인도 아히도 다 갖구나! 그

않다. 하지만, 내가 할부로 하

기 때문에 조곰도 재미 잇는데는

안이야. 게다가 나는 조흔 사람은

안이야. 내 멋대로 하는 고집이

고 배죽배죽 노하는 참 칭말 못

된 청미인데, 아아, 그레도 그 아

이들은 내 일흥이 조그만 광채라

는 의미라고 말했지. 아이 난 광

채가 되고십다. ... (사이가 써셔 누

가 차져 왔다) 메 드려오슈!

노라 — 아씨, 오날밤 연회에 입으실

옷이 다 준비되어 잇습니다.

루세트 — 아, 참 얼이 빠졌네. (잠간

생각하다가) 아버지씨 오날밤은 크

리스마쓰 이브'닛기 갖치 집에 잇

자구 말씀하섯지. 아버지 아마 심

심해 하실걸. ... 노라야, 난 오날

밤 어를 갈가 헛터니, 고만 들가

보다. 하지만 폴은 옷을 준비해다

오. 아버님씨서는 그것을 데일 조

화하시닛가.

노라 — 그럼, 아씨, 오날밤은 집안에

계시랍닛가. 참 얼마나 영감씨

기뻐
기뻐할까요.

루세트—응, 난 인케 그 아희들이
한 말대로 해볼테야.

노라—엇던 아희 말씀임닛가. 아씨
꿈 씩이나 씩시엇슴닛가.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루세트—응, 꼭 그래. 하지만 그것

은 귀한 『크리스마스』의 씩이아,
네겐 안 들니니? 더 천사의 노
래가.

노라—안이요. 아씨 더 것은 앞으
로 도라가는 합창대을시다.

루세트—아아, 참 반갑다. 합창대들
을 볼너드려서 차라도 주렴. 구두

장수는 벌써 갖겼지? (후회하는것
같) 갖기도 하고, 반쯤은 붓그려워하는—모

노라—구두장수 말씀임닛가. 아씨,
아직 잇습니다. 령감님희 산양 구

두를 사시라고 편하고 잇습니다.
루세트—(열심으로) 응, 그래? 그럼

거기서 끝 구두장수를 이리 드
려 보나다오.

노라—그럼지요. (나간다)

루세트—아, 짓겁다. 내가 잇가 그
렇게 칭을 내인 사과를 지금 하

게 되얏구나.
(구두장사와 노라가 등장)

구두장사—무슨 일이 계심닛가. 아씨.
루세트—여보, 내게 그 꿈다란 겁

청 구두를 신켜봐 주슈. 그럼. 잇
가는 너 무 짜 주슈. 내여서 미안하

오. 용서해 주슈.
구두장사—메 천만에어 말씀다 하

신문 기사 교정

조선문화의 조감도

한글 도서 전람회

우리들의 자량이요 또한 세계에 자

랑할만한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창정

하신지 사백 팔십 팔년의 돌을 미

지하는 돌아오는 시월 이십팔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내 수표청 조선

어학회에서는 이 뜻 깊은 기념일을

마지하야, 여러가지로 그 기념에 대

심심 심니다. 그러. 그러나 마지섯스면 조
겠습니다.

루세트—(전면으로부터 돌아서서) 구두
를 신는 동작)

매우 발이 편한걸.
(깃본 노래의 서곡(序曲)이 고요히 들

린다)
루세트—(뛰어 일어나면서) 합창대가

온다. 그러나 내가 씩속에셔 드른
것은 참정말 천사의 노래엇든가.
잠간 드러보아라.

한것을 준비해온바 잇섯는데, 특히 이

번에는 권회원이 각 방면으로부터 수

집해온 귀중한 문헌을 공개하는 조

선어학도서전람회를 시월 이십팔일부

터 이십팔일까지 이일간 송현동 그

천 보성전문학교 자리에서 개최하리

라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보기들은 진귀

한 출품물을 보면, 세종대왕께서 창제

하신 훈민정음 원본과 세종조에 간행

된 용비어천가의 원판, 그리고 자서

(字書)의 최고본으로 오직 한편만 남

어잇는 삼운통고(三韻通考)와 아울러
사백 오십여년 전에 동할자로 박힌

(구두장사, 만족한듯한 얼굴빛으로 나간
다)

(합창대는 케를을 노래한다)
루세트—(나직한 목소리로) 노라야,

너 곤하겠지? 원종일 내 심부름
로 갈팡질팡하닛가. 갖치 안켜셔

쉬면셔 소래라도 들켜구나.
노라—(잠씩 놀나면서) 깃버씨)

씨! 꼭 메셔 갖치 재미잇는 크
리쓰마쓰를 밋게 되겠지요.
(막이 나린다)

급강경삼가해등 고서만 이백여점이 진

렬되었스며, 이외에도 한글 운동에 관

한 서적 사전 도해등 일천 이백여

점의 출품으로, 실로 조선 한글 운동

에 일대 『예품』을 지을 조선 초유

의 대천람회인만큼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는 것이며, 조선 문화의 조감도라 할수

잇다 한다.

그리고 특히 당일의 입장자에게는

『한글』에 대한 설명이 부른 도서목

록을 진정하리라 하며, 입장료는 십

전, 학생은 오천이라고 한다.
(조선중앙일보)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語彙調查 卷一부터 卷四까지

教科書綴字法과統一案과의對照

(3) 李 浩 盛

교과서 통일안

【구】

구경(觀)

경성구경

구경하러

구경군중에는

구경을

구경시켜주시

기를

구경은

구녕(穴, 孔)

창구녕으로

구두(洋靴)

구두요

구렁이(大蛇)

구렁이같이

구루마(荷車)

구루마같이

구름(雲)

구름이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석(隅)

한구석을

구슬(玉)

구슬같은

구월(九月)

구(九)

구진은

구주(九州)

구주나

구주에

구차하다(貧)

구차함으로

구호(救護)

구호를

【꾸】

꾸(鷄聲)

꾸물거리다

꾸물거리고

꾸준이

꾸중

꾸중을들었

습니다

【귀】

귀(耳)

귀만

귀로

귀를기울였다

귀를기울렸다

귀신(鬼神)

귀신이올시다

귀신이란것이

귀엽다(可愛)

귀여워도

귀여합니다

귀여운말

귀중(貴重)하다

귀중하

귀중히

귀치안라

귀치안케

귀하다(貴)

귀한물건을

【국】

국(湯)

국(國旗)

국기가

국문(國門)

【국】

굶다(太)

굶었다가늘었

다하고

【군】

군수(郡守)

군수에게

군수도

군인(軍人)

군인이면서

【군】

군다(團)

군은사람이지만

군게

【굴】

굴뚝

굴뚝은

굴뚝의

굴트다(轉)

굴트면서

굴리다(轉)

굴리는듯하야

굴지(屈指)

굴지하는도회

【굴】

굴다(跪)

굴고

꿈(夢)

꿈이란다

꿈나라

꿈꾸다

꿈꾸었구려

꿈을꿈것이지

꿈처럼

꿈처럼

【굶】

굶다(餓)

굶는다

굶어서

【군】

군다(燒)

구워서

구워서

구워서

【굴】

굴으리다(屈)

구부리다

굴으리고

구부리고

굴새다

굴새인

【궁】

궁녀(宮女)

궁녀들의

【그】

그요자

그들의

그의

그는

그것

그것이

그것은

그것을

그것보다

그대로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그대

普通學校...◇

朝鮮語讀本卷一

◇...指導例

(五) 沈宜麟

一、教材 四十一 (아침인사)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형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김서방 잘 잤소.

복동아 잘 잤니.

二、教材觀 道德的教材로 禮儀作法 中 아침에 인사하는 法을 알려줄 것이다.

키사람이 高尚하고 겸자는 사람인지 野卑하고 賤한 사람인지를 알라면 禮儀作法을 보고 안다 하야도 過言이 아니다. 같은 말 같은 行動을 하는데도 禮儀作法을 잘 지키고 못 지키를 알아서 그 사람의 人格까지라도 알수있다. 그리고 禮儀作法에는 風俗習慣에 依하여 다 각각 一定한 法이 있음으로 自己 마음대로 하야서는 못쓴다. 社會에서 一定한 禮儀作法을 잘 외여서 習慣이 불게 하야야 한다. 그림으로 이 教材는 本文을 讀解할뿐더러, 이 禮儀作法을 實行시키도록 努力할것이다.

1, 文...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식구한테 인사하는 법을 쓴 글이다. 즉

아버지와 형님과 집에서 일하는 김서방과 동생 복동이에게 아침인사하는 말을 쓴 것이다.

2, 인사하는 법,

父母長上...어른을 모시고 잔 때에는 일어나서 량수하고 서서 말로만 인사를 엿주어도 초치만, 만일 각방에서 잔 때에는 부모님방으로 들어가 침을 하고 말 인사를 엿주는 것이 보통례이다. 인사하는 말에는 여러가지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사이 괴운이 한가지십니까.」

「밤에 침거나 아니 주무셨습니까.」

.....(겨울에)

同等...친구라든지 흥은 집안식구에도 그다지 존대를 하지않을 경우의는, 그냥 고개만 숙여서 레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잘 잤소.」

「밤사이 괴운 엿드시오.」

「편안히 주무셨소.」

手...아해들 동모라든지 손아해 사람에게 하는 인사는 다음과 같다.

「○○아 잘 잤니.」

「모시고 잘 잤니...」부모 잇는 아해더러 하는 경우)

「밤에 잘 잤니. 펴 일즉 일어났고 나」

3, 挿畫...아버지와 형님이 계신 방에 들어가서 침을 하고 아침인사를

엿주는 모양이다. 보통은 아버지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것이지만, 여기는 끌어앉으셨다. 아들의 침하는 법도 신식례를 하는것 같치 되었나. 그림이 좀 들 되었다.

4, 新語...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형님, 김서방, 복동.

5, 補充語...아침인사, 웃어른, 손아레, 침, 레, 량수, 밤사이 괴운, 모시고, 끌어앉었다.

6, 新字...녕, 히, 형, 님, 잘

7, 語法

副詞에 「히」를 쓰는例

대단히, 자연히, 흔히, 가득히, 넉넉히, 안녕히, 단단히

問詞...나잇가, 소(오), 니(用言 경우)

三、指導方法大要 (三時間 拔取)

1, 自由讀... (자기 힘으로 읽어본다)

2, 試讀... (일마나 읽을줄 아는지 읽혀본다.)

3, 新字指導... (쓰는법, 읽는법)

4, 指名讀... (몇 아이 읽혀본다)

5, 範讀... (읽는법을 잘 듯게 한다)

6, 大意發表... (무슨 말을 쓴것인지 자유로 발표시킨다)

7, 內容問答... (무엇하는 말이나?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 말이나? 아버지에게는 무엇이라고 하니? 형님에게는? 김서방에게는? 복동이에게는? 김서방은 누구겠니? 복동이는 누구겠니?)

8, 自己 家庭에서 아침인사를 한經驗을 發表시켜보이고 批評을 한다.

9, 挿畫에 對한 問答과 補充語 指導

10, 아침인사에 對한 여러가지 禮儀作法을 實際로 練習하야본다.

11, 指名讀... (틀림없이 잘 읽도록)

12, 齊讀... (여러 사람이 소리를 맞추어 읽는다)

13, 大意의 整理... (아버지와 형님과 김서방 복동이에게 아침 인사하는 말을 쓴것입니다)

14, 語句의 應用練習... (안녕히, 잘)

15, 書取練習... (視寫, 聽寫)

16, 應用文의 讀法

「아버지 밤사이 괴운이 한가지십니까. 어머니 밤에 침거나 아니 주무셨습니까.」

김서방 모시고 잘 잤소.

너 별거 일오냐니. 밤에 침지 안든다

米國 람손博士 著

朝鮮 姜炳周氏 譯

新撰童話法

定價 二十五錢

이 책은 米國 宗教教育界 巨星 람손博士의 講話인데, 內容은 童話의 定義, 童話의 價値, 童話의 種類, 童話의 選擇, 童話의 分解, 童話의 準備, 童話의 態度, 童話의 方法, 童話의 作法, 童話의 修正等 무릇 十餘項을 平易하게 叙述하였다. 또 綴字法 統一案 略解를 끝에 붙여었다.

한글반포 四八八회 기념식

홍민정음(韓民正音) 발표 제 사백 팔십 팔회의 기념일을 맞이 하게 되어, 조선어학회에서는 지난 시월 이십팔일 하오 유 시부터 부내 인사동 천향원(天香園)에서 각계 인사 백수 십명의 참석으로 간사장이 이승(李熙昇)씨의 사회하여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세계 어느나라 어느 민족의 글을 볼수록 각기 그 유래가 있으니, 라틴말은 로마, 애굽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말은 아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으리 만큼, 우리말은 독창적임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나라 글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글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하고 귀한 창조물의 유산을 거족적으로 연구하여 더 광휘있게 하기 위하여 이 날을 기념합니다.

이와 같이 식사가 있은 후, 권덕규(權惠奎)씨의 홍민정음 봉독과 그 다음 김윤경(金允經)씨의 작년 시월 이십구일 본회의서 한글 맞춤법 통일

안을 발표한 이후 각 신문잡지에서 이를 채택하고, 또 각 종교단체와 각 출판사에서 간행하는데 개의 출판들의 모두 우리의 통일안을 따르고 있으며, 조천어 사권 편찬의 사무를 지금도 진행중에 있지마는, 우선 시급한것은 철자사권이 있어야 일반의 학습과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미 오만여회를 모은 철자사권이 불완간 출판되리라

는 일년간 경과 보고가 있었고, 이어 본회 주최인 조선어학도서전람회(朝鮮語學圖書展覽會)에 대하여 이규로(李克魯)씨로부터

제1실업은 주로 고서부요, 제2실업은 통일안 제정에 대한 참서류와 일반 참고서책이 있고, 제3실업에는 실험성음학(實驗聲音學) 참고부요, 제4실업은 조선어사전 편찬의 여러가지 재료 공개요, 제5실업에는 천주교와 예수교의 서적이며, 제6실업은 신철자로 된 서적의 일부분이 진열되어 있다.

는 상새한 보고가 끝나고, 내빈 축사가 있었다. 처음의 이종린(李鍾麟)씨는

우리 조선말은 다른 나라의 글보다 훨씬 잘되었다고 하는 하지마는, 여태까지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해서 그 철자법이 대단히 혼란하여 왔는데, 조선말과 글을 수십년동안이나 전문으로 연구한이들의 비로소 작년 이페의 통일안을 발표하였음에 대하여 무엇이랴고 말할수 없으리만큼 감사하고 축하하는 바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가지 일을 가지고 오래동안 꾸준히 해나간다는것이라든지 또한 그 지조(志操)를 바꾸지 않는다는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조선말을 먹는다고 조선사람이 아닐것이며, 조선말을 입었다고 조선사람이 아니요, 조선말을 할줄 안다고서 조선사람의 아니라는 것은 더 말할것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사람이란 마땅히 조선사람으로서의 정신을 가져야 하나니, 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글을 친히 여겨서야 되겠읍니다. 우리의 말은 우

리의 정신을 표상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의 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의 출판물에는 반듯이 이 신철자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되라도 이 방면에 부단히 노력하시는 여러 학자들에게 대한 나의 충성된 복응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인(李仁)씨는 우리 조선사람도 과거의 역사는 찬란하였읍니다. 여러가지 문화가 남에게 비하여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을 만큼 발달이 되고, 나아졌으나, 지금엔 점점 떨어지고 말았읍니다. 옛날의 자취는 찾을래야 찾을수 없게 되었읍니다. 모든것은 다 없애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남은것은 보배로운 우리의 한글이라고 보겠읍니다. 다만 한가지만이 남은 이 보배를 우리는 귀히 여길줄 알아, 한층더 빛나게 하여야 할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아름다운 한글 운동들 쉼해하는 반동분자가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우리의 문화운동에 마음과 정성을

바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 다음 김창제(金昶濟)씨는 일본내지의 고고학자(考古學者)인 빈켄청릉(濱田靑陵)박사는 말하기를 조선에는 사대명물(四大名物)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고찰(古刹)의 탑, 둘째는 고려자기(高麗磁器), 셋째는 기생, 넷째는 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이의 말과 같이 이 사대명물은 대개 상당한 역사가 있고 문화적으로 보아서도 명물이라고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읍니다. 그러나 사대명물이 오늘에 와서 그대로 점점 향상하느냐 하면, 고찰의 탑은 고적으로 이름이 있을 따름이요, 자기는 고대의 유품(遺品)이라고 하겠으나 얻어보기 어렵고, 기생은 옛날에는 여자예술가라고 하던것이 지금에 매소부로서의 취미가 되어버렸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글은 이만큼 연구하고 현대 과학적으로 발전한다는것은 무엇 보답도 축하하는바이나, 지금 말한바 다른 사대명물과 같이 우리의 한글도 고대의 유물에 그치고 앞으로 더욱 발전이 없을까 하는 기우(杞憂)도 없지 않읍니다.

이와 같이 이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 조친사람은 서로 차
우고 차우는 것이 비사회적
이기때문입니다. 조친의 장
래를 어떻게 보는가? 발
친과 퇴보를 누가 증명하
겠읍니까. 이조(李朝) 중엽
이후 삼백년동안 봉양을 세
워서 사투를 일삼던 복철
(覆轍)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
음에서 지나간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러한것을
밟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바이며, 좀더 사회적으로 대
동적으로 이 보물을 정제
하며 용진하기를 바라는바
이옵시다.

다음으로 청태희(鄭泰熙)씨는
이들을 당한 기쁨이 이루
다 말할수 없읍니다. 우리
에게 이러한 글이 있었다
는것은 얼마나 행복된 일입
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글을 친대하고 압박하여왔
으므로, 지금까지 오직 표
준이 없이 호란상대로 있었
읍니다. 거년에야 비로소 조
친어학회에 완전히 정리
하여 통일안을 발표하였으
니, 인제야 우리글이 완전
한 가치를 나타내게 되었
읍니다. 우리는 이제 철거
히 그대로 쓰자는것을 맹
세하는것으로써 이날의 기
념을 삼읍시다.

추사는 이로써 마치고, 각시
방으로부터 축전(祝電)과 축
사(祝辭)를 보낸것이 많은지
라, 장시영(張志暎)씨가 그것
을 낭독하니, 곧 다음과 같다.

祝電 東京 姜 鎬 哲
뜻있는 오들을 맞이하여 한
가지 환희한다. 귀회의 청
당한 학리와 노력으로외 호
란한 학살을 청산하여 널리
한글의 진가 소개하기를
빈다. (번역)
以下는 紙面 關係도 電
文은 略한다

晉州 姜大昌 木浦 崔基龍
咸興 金觀植 新幕 廉公鐸
群山 方漢回 新興 李弼鍾
平壤 蔡弼近 新溪 宋柱星
晉州 金啓道 仁川 安八峰
巨文島元正 安岳 金庸大
平壤 李勳求 堤川 報支局
東萊 金秉圭 三長 金榮均
釜山 姜永淳 河東 報支局
間島 姜敬愛 清津 報支局
清津 張 震 鎮南浦의 報支局
突山 朴준혁 會寧 報支局
晉州 韓宗희 林川 報支局
大邱 張仁煥 金泉 鄭烈模
祝辭 平南順安義明學校
金 演 默

로 世宗大王的 聖恩을 追慕
하오며, 다음으로 周時經先生
의 先覺을 崇敬하오고, 끝으
로 朝鮮語學會의 成果를 頌
祝하나이다.

祝辭 滿洲 四平街 普通學校
鄭 在 甲
調民正音頒布 第四百八
十八回の 紀念式을 當하여,
우리 民族의 들도 없는 보배요
세계의 사랑할만한 우리 한
글을 創制하오신 世宗聖主의
거룩하심을 감사하오며, 겸하
여 混亂狀態에 있는 우리 글
을 바꾸잡기에 努力하시는 朝
鮮語學會 여러 先生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統
一案을 支持하는 一分子로서
우리글이 더욱더욱 더 힘있
는 發展과 統一이 되기를 願
히 海外에서 비나이다.

祝辭 東亞日報 天安支局
李 會 馥
아름다운 우리글, 재임있는
우리글, 눈물겨운 우리글, 즉
순 같이 자라오시. 해빛같이
퍼지소서. 아담스런 우리글.

祝辭 朝鮮日報 開城支局
뜻 깊은 이 한글날에 우리
글이 앞으로 더욱 식식하게
번어 나아가기를 바라고 빈
다.

祝辭 朝鮮中央日報 新安州支局
安 在 珩

오늘은 訓民正音 頒布 第
四百八十 八回の 紀念日이
다. 우리 한글은 世界에 類
例가 없는 優秀한 文字이며,
우리 民族이 永遠히 가치할
寶物이다. 그리하건만, 우리는
이 한글을 草率히 하였음에
自愧를 느낀다. 우리는 이 한
글날을 더욱 格別한 意義에
서 맞게 된다. (下略)

祝辭 大邱 張 赫 宙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와,
한글을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
의 꾸준한 정성과 힘쓰심이
한층 더하을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祝辭 海州 崔 昌 文
한글을 創造하신 우리 聖
帝 世宗의 偉大한 恩功은 비
록 夢寐間이라도 잊시 않는바
어나와, 거위 廢滅不具의 慘
地에서 起死回生하게 한 朝
鮮語學會 諸先生의 中興한 勳
績은 한글의 存在와 함께 永
遠히 빛나리라고 믿읍니다. 初
今年的 한글날 紀念式과 初
席하지 못한은 매우 誠切하
옵니다. 그러나 다만 멀리서
書字로 祝賀의 뜻을 表하오
며, 아울러 한글의 普及과 完
成을 위하여 發奮志食하시는
諸先生의 健康과 幸福이 永
續하기를 바라나이다.

祝詩 金北 泰仁邑內 金 鎮 奭
조친 녀 생겨온지
사천년이 거오도록
나랏글 지을 생각
통혀 맘껏 두지 않고,
남의 글 비럽질하야
넋살 좋게 썼어라.

◇
배우기 힘이 들고
쓰기조차 어렵거니
케마다 배지 못해
글장님이 하도 많다.
어쩌다 이 나라 겨레
아니 불상 하오리.

◇
늦게야 세증입김
거룩하게 탄생하사
두세분 신하 한갓
비롯 이른 한글 보배
초중중 수물 여덟자
인 누리에 빛내세.

祝辭 海州 崔 昶 楠
기쁨에 넘치는 새 명절을
맞으며, 가신 임이 더욱 그
림읍니다.
사람은 덧없다 할지라도,
한글은 길이길이 우리 겨레
의 동물이 될것입니다.
벗님네여! 잔 가득 부어
이날을 축하합시다. 우리에게
보배를 끼치신 임의 거룩하
신 뜻을 기리면서 임의 거
룩하신 뜻을 받들어 한 깃발

清州朝鮮中央日報支局	王恩燦	咸北羅南	姜 秉	全南兵營	崔 浣	忠南泰安	孫奉穆
全羅葵樹教會	李玄侑	鏡城高普校	金容河	全北長水郡	李在甲	慶州	崔鳳守
星州公普	李太主	安 城	金台榮	定州五山高普	朱基燦	慶州	金 清
馬 山	白道泰	報恩東亞日報支局	趙鑄國	統 營	卓相銖	江景朝鮮日報支局	金星園
泰川東亞日報支局	李石純	南川朝鮮日報支局	張東潤	統營文友堂	鄭德寶	星 州	최종건
慶南陝川邑	千一洙	利川朝鮮日報支局	車大桓	統營東亞日報支局	崔 天	星 州	김규진
公州朝鮮日報支局	林鍾國	龍岡邑內	俞晶濬	鐵山東亞日報支局	張石重	平北七坪市	金成煥
咸南高原	洪吉善	利川東亞日報支局	朴吉勳	義州邑內松山堂	朴潤元	洪城朝鮮日報支局	崔鴻鏞
長城東亞日報支局	趙義高	永同朝鮮中央日報支局	金重寶	運餉東亞日報支局	河 清	羅州東亞日報支局	梁長柱
水原東亞日報支局	趙鑄薰	江東東亞日報支局	張熙文	慶南宜寧	俞龍穆	春川高普五學年一同	梁長柱
長湍東亞日報支局	張錫震	安岳朝鮮中央日報支局	金根培	慶北高靈邑	安秉德	春 川 邑	신영철
平壤正義女高普	金秉亮	公州永明學校	李鍾浩	春川東亞日報支局	朴琿柱	新興朝鮮日報支局	李恒國
平壤正進女子普校	孟義燮	清州清南學校	趙東珠	居昌郡廳	羅斗植	寧 邊	蔡祐炳
金 泉 邑	林基大	報恩朝鮮日報支局	尹 濼	奉天北市場普校	鄭光鉉	居 昌	홍 수
新安州東亞日報支局	金顯泰	忠南禮山	文孟先	水原朝鮮中央日報支局	吳基煥	寶城郡文德面	金贊洙
鳥致院朝鮮日報支局	李敬善	保寧東亞日報支局	孫命基	新幕朝鮮日報支局	崔允鎬	滿洲鞍山普校	趙綏錫
天安東亞日報支局	장지형	安東朝鮮中央日報支局	張洪植	平 壤	金鎮穆	平壤崇仁商業學校	趙綏錫
大田東亞日報支局	金光浩	東萊邑共榮堂	趙煥奎	元山樓氏女高普	金益鎬	江東朝鮮中央日報支局	李順明
太 田 邑	李東熙	東萊沙下公普校	李用辰	宣川信聖學校	慧 勛	咸安朝鮮日報支局	崔如九
定 州 邑	李光玉	安東縣朝鮮人青年會	朴期龍	宣川南面石和洞	金吉昌	金浦月申面開谷里	李順明
大邱啓星學校	洪海德	安東縣東亞日報支局	金泰午	釜 山	李德元	春川公普校	朱基榮
黃 州 邑	姜永煥	長連朝鮮日報支局	李鍾極	釜 山	추명하	神仁市東瓦地二丁目	張芝用
黃 州 邑	申世氣	慶州郡陽北面魚日里	金英賧	釜 山	崔淳植	碧潼郡鶴會面改良書堂	宋學彥
兼二浦朝鮮日報支局	金滄振	星州公普校	신승낙	釜 山	韓永鎮	淮陽東亞日報支局	金斗七
南市朝鮮日報支局	金河善	星州公普校	李鍾極	釜 山	李鳳疇	平壤神學校	白南薰
新 義 州	劉應鍾	光 州	崔秉七	釜 山	高德煥	晉州一新女高普	趙敬乃
新義州東亞日報支局	朴俊泳	全南順天邑	全北大野	釜 山	徐廷玟	漆原公普校	孫昌鉉
京元線洗浦	金錫社	全北大野	井邑朝鮮日報支局	釜 山	金海剛	務安岩泰面	孫昌鉉
元 山	金錫社	全北大野	金堤東亞日報支局	釜 山	李鍾麟	滿洲興京縣河南朝鮮人基督教會	朴泰極
鎮興朝鮮日報支局	金錫社	全北大野	金堤東亞日報支局	釜 山	李鍾麟	滿洲吉林省密山縣平陽鎮	朴世桓
群山南朝鮮電氣株式會社	金錫社	全北大野	金堤東亞日報支局	釜 山	李鍾麟	滿洲吉林省密山縣平陽鎮	朴世桓
全州新興學校	金錫社	全北大野	金堤東亞日報支局	釜 山	李鍾麟	滿洲吉林省密山縣平陽鎮	朴世桓
庫底東亞日報支局	金錫社	全北大野	金堤東亞日報支局	釜 山	李鍾麟	滿洲吉林省密山縣平陽鎮	朴世桓

창으로 식을 마치고, 식탁으로 옮기어 주빈간 간담을 섞어 즐겁게 다하고, 동 구시 삼십분에 퇴회하였다.

기념방송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서 는 한글날 전날인 시월이 삼십일 오후 7시 삼십분에 한글날 기념방송이 있었는데, 우리 회원 이운재(李允宰)씨를 청하여, 「訓民正音 頒布 紀念日에 際하여」란 연가로 장엄하였다.

조선어학도서관전람회

(朝鮮語學圖書展覽會)의 기사는 여기에서 실으려 하였던 것이나, 지면 관계로 부득이 다음 호로 밀게 되었습니다.

한글 등일안을 발표

한글 등일안을 발표하여, 이들을 기념하는 뜻으로 특히 해설호를 발행한 것이다. 이것이 발행된지 일주일의 못되어, 권부매진(賣盡) 되었으므로 재판 인쇄하여 지금 남은 것이 불과 수십부이오니, 구하여 두시고자 하시는분은 다 없으시기 전에 속히 청구하시오.

한글 등일안(號大增 月一十 글한)

新刊紹介

震檀學報 第一號

朝鮮 및 隣近 文化의 研究
 目的으로 하는 — 歷史、文學、言語、民俗、宗教、哲學、美術、考古、社會、經濟、其他一切을 融合하여 남은 歷史文化의 一 荒野를 開拓하고자 하는 — 震檀學會의 機關誌요, 研究報告書인 이 學報는 인제야 그 創刊號가 나왔다. 東方文化를 실답게 吟味 認識 하려거든, 이 品位있고 權威 있는 이 雜誌를 읽어라. 書法은 全部 統一案 綴字法에 의지하였다.

內 容

〔論述〕 三韓問題의 新考察 (李丙燾) 庶孽 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 問題 (李相佰) 朝鮮詩歌의 一 胎生 (趙潤濟) 朝鮮古代神의 的 性에 就하야 (孫晉泰) 時調의 發生과 歌曲과의 區分 (李秉岐)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活動 (金岸基) 風神考 (附 禾竿考) (宋錫夏) 震檀辯 (李丙燾)

〔資料〕 蘭船 濟州島 難破記 (하멜漂流記) (李丙燾)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代金을 보내실 때는

青年常識叢書

- 朝鮮歷史 全 二十錢
- 西洋歷史 全 二十錢
- 世界地理 全 二十錢
- 政治篇 全 二十錢
- 經濟篇 全 二十錢
- 法律篇 全 二十錢
- 哲學概論 全 二十錢
- 社會學 全 二十錢
- 人體生理 全 二十錢
- 家庭衛生 全 二十錢
- 新體書翰文 全 二十錢
- 朝鮮語文法 全 二十錢
- 物 理 全 二十錢
- 化學 全 二十錢
- 商業 全 二十錢

農村夜學教科書

- 勞働讀本 一 十五錢
- 勞働讀本 二 十五錢
- 勞働讀本 三 二十錢
- 勞働算術 上 十五錢
- 勞働算術 下 十五錢
- 漢字初歩 全 二十錢
- 勞働理科 全 二十錢
- 農業初歩 全 二十錢
- 勞働書翰 全 十五錢

한글 맞춤법 통일안

半千年 以來 整理 못되었던 우리글을 朝鮮語學會의 손에 빌어 비로소 맞춤법(綴字法)이 完成되었다. 全 民族이 統一하게 쓸 표준글은 반듯이 이것에 말미암을 것이다.

訓民正音原本

四百 八十 八年前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을 頒布하시던 그 原本을 寫眞銅版으로 縮刷한 것이다. 우리글의 근본을 알고 고쳐 하는이로는 아니 보면 안된다.

延禧專門學校教授 崔鉉培先生 著

중등조선말본

菊判二百頁 紙質堅厚 脊布美本

定價 八十錢。送料 六錢

大好評・再版

- ◆標準朝鮮語文法인제出現
- ◆最良의 朝鮮語文法教科書
- ◆朝鮮語研究의 基礎知識書
- ◆著者數十年專心研究要領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基準한 文法이다. 무릇 朝鮮語에 뜻 있는이는 누구든지 배우라 의의라.

◎注文은 朝鮮語學會出版部로

京城花洞 一二九番地

振替 京城壹〇參六番으로 하시오

廣告

本誌 今年 四月號부터 十月號까지 殘品이 若干 있사오니, 要用이 되실이는 곧 請求하시오. 특히 每冊 二割引 提供하나다.

朝鮮語學會出版部 白

다음과 같이 두분을 本社의 顧問으로 推薦하였나이다.

崔達河 金用觀

한글鎮南浦支社

定價

一部	五錢	代金은 받듯이
六個月	三十錢	先金을
一箇年	五十五錢	要함.

昭和九年十一月廿九日 印刷
 昭和九年十二月一日 發行

【定價 五錢】

編輯兼 發行人 李 允 宰

印刷人 金 鎮 浩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